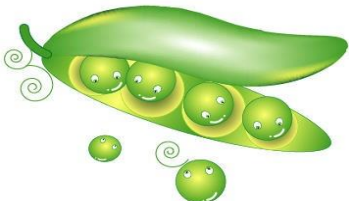


Beans Family in J.s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 10:16)”*

T국 결혼식은 ~♥

T국의 한여름 밤의 꿈은, 라마단 이후 계속되는 결혼식으로 방해를 받았습니다. 스과 같이 한밤중에 시작되며 보통 3-4일 밤 잔치를 합니다. 초대받아 참석하여보니 음식(4)은 간단하고 주로 '할루'라고 하는 단맛의 간식(5)과 음료가 나옵니다. 신부(1)는 매일 새옷으로 치장하고, 가족은 향불(3), 아랍식 특유의 고성방가와 함께 춤(2)으로 지새우는 밤이지요. 라마단을 제외한 여름이 결혼철이라 한집 건너 한집이 매일 밤 식을 올려확성기 아랍노래가 자장가가 되었습니다.

한여름의 이사

영육간의 뜨거운 여름 잘 보내셨나요? 더위 속에서 우리 몸이 열을 받는 만큼만 영혼도 예배 속에서 스의 뜨거움을 느낀다면 세상에서 불어오는 바람쯤은 거뜰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드는 7,8 월 입니다. 저희 가족은 지난 번 편지 가운데 나누었던 대로 여름을 집 이사로 시작하여 아이들 학교 이전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저희를 위해 두손 모아주신 덕에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라고 감사할 수 있는 곳에 집을 옮기게 되었고, 학교도 공사 중이지만, '소문의 18 년 청소 안 한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벗어나 좀 더 위생적 환경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전보다 서민적이고 현자인 이웃과 접촉이 더 빈번한 장소인 만큼 주변 시선으로 받게 되는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각오를 하고 정한 곳인데, 아이들이 이곳을 더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역시 스님이 하시는 일은 말씀과 평안을 주시며 선하게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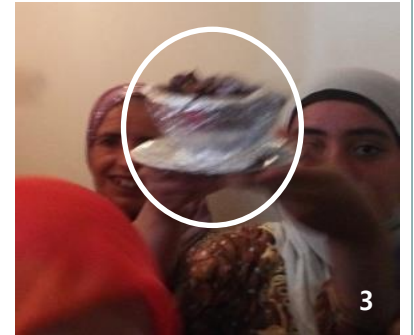
이것이 라마단이다!

7월 1일 이사는 큰 짐이 많지 않아 쉽게 정리되고 정착할 것이라 기대와는 달리 라마단이라는 복병과 아랍인들의 노동 문화가 만나면서 저희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도와주는 저희 팀 사람들도 있고 해서 오전 3 시간이 채 소요되지 않은 아주 간단한 이동이었습니다. 라마단을 만난 아랍 노동 습관과의 씨름은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인과 여러 차례 만나며 약속된 대로, 가스 연결, 집 전등 설치, 베란다 문(외부 길가와 바로 마주한 문)수리, 화장실 수리 등이 당연히 마무리 되었을 것이라 여기고 짐을 옮기고 보니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집주인은 관리인에게 인계하고 여름 바캉스로 가족과 지방에 있고, 관리인은 수리공에게 다시 연락한다며 가더니 얼굴 보기도 어렵습니다. 막버려진 시멘트와 페인트로 막힌 변기, 실리콘 처리가 안되어 물이 새는 싱크대, 한번 사용으로 고장나는 창문틀, 손에 묻어나는 벽 페인트 등, 손볼 곳이 한 두 곳이 아니기에, 리모델링한 새집이란 기대가 걱정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처리하기 위해 각각의 수리공과 직접 연락하려고 관리인에게 연락처 받아 수리공에게 일을 부탁하는 것만 기본 하루가 소요되었고, 수리공은 라마단이라 밤부터 새벽까지 먹고 즐기니 아침 일찍은 못 오고 오후에 와서 일하다 작은 부품이 없어 가지러 간다더니 무소식. 다음날 오후에 나타납니다. 오는 시간은 반나절 늦게 오는 것이 기본이지만, 일 처리와 상관없이 라마단 저녁식사 시간은 칼같이 맞추어 집에 갑니다. 가스 연결만 3 일, 불량처리로 나중에 가스가 새어 나와 다시 3 일이 걸려 수리하며, 우리의 인내심이 생각보다 많음(^^)에 감사하는 것으로 이사 신고식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2 달이 지난

아직까지도 마무리가 안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두손 모음없이
 변기 수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 곳은 부르심의 ‘땅끝’임이
 분명합니다. 보이는 곳에서만 일하는 척하는 노동 습관이 라마단을
 만나며 나태함과 무책임의 정점을 찍는 것을 체험하며, 육적인
 더위로 인한 것이 아닌 영적으로 공격받아 깨진 삶의 모양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낮 금식 라마단 한 달’이 땀 흘려 수고하여야 하는
 인생의 틀을 비성경적인 방향으로 왜곡시켜감을 보며 하나님의
 뜨거움이 이들의 삶을 녹여 재창조해야만 육의 삶에도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될 것이며, 우리의 두손에 저들의 영육의 생명이 함께
 맡겨있음을 깨달았습니다.

Business (사업) or ministry (사역) ?

아랍 현지에 나와있는 일꾼들에게 ‘거주를 위한 비자’ 문제는
 갈수록 예민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3개월마다 비자 여행을 다니며
 사역을 할 것인가? 비자를 얻기 위해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여
 정착을 할 것인가? 그럼 사업을 위한 노력과 시간이 사역을 위한
 힘과 시간에서 분리하여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거주
 해결과 사역 시간 확보를 위해 사업은 예산을 붓기만 하는 밑 빠진
 항아리가 되도록 놔둘 수 있는 문제인가? 등 쉽게 판단하고 결단할
 수 없는, 사역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비단
 현지 일꾼만의 일이 아니라 한국의 파견 회사와 함께 일하는 팀이 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사역의
 장애물이 되는냐’, ‘재정문제 등의 애물단지가 되는냐’, ‘사역의
 통로가 되는가’는 두손을 모으는 것에서부터 하나가 되어야 싸워갈
 수 있는 영적 전쟁의 영역 안에 있는 두손 제목입니다. 이를 위한
 저희의 소망은 사업이 사역의 도구로서, 사업을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사역의 방향성이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기묘와 모사, 지혜의
 근원이신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모든 결제는
 하나님을 통한 말씀의 도장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저희의 일이 이곳에 땀 흘리는 수고와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보여줄
 수 있는 빛이 되기를, 아버지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에선 아웃라인이라도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하며
 먼저 저희의 영이 깨어 분별할 수 있도록 두손 모아주세요.



... 이것을 위해 두손 모아 주세요 ...

1. 기존 현지 친구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깊이 있는 대화의 발전이 있으며, 새지역에서 새 이웃과도 브이을 나눌 수 있는 영적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2. 비자문제 문제 해결 뿐 아니라 사역과 연계된 사업 계획안이 잘 세워지도록.
3. 아이들 학교 내,외부가 계속 공사 하는 중 개학을 하였는데 모든 학생들이 안전사고 없이 다닐 수 있도록,